

자연과의 조화로운 힐링의 시간

스토리 치유
스토리발굴 이원직



국립산림치유원이 영주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본인도 그중 한 명이였다.

국립산림치유원을 짧게 설명하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산림복지 단지로, 세계 최대이자 유일한 산림치유 공간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142ha의 면적과 다양한 수종(樹種)을 자랑하며, 상수리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등이 주요 수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대 59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고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숲 클리닉과 산림 치유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해먹에 누워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보내는 힐링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어 해먹 안의 시간은 마치 요람 안에 있는 아기만큼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느끼는 평온한 순간은 진정한 힐링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산책하기에도 이상적이었으며, 식당에서 나오는 매 끼니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데 탁월한 기회였습니다. 직원분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각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인 스마트폰 등과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감사했습니다. 조용하게 책 읽는 시간을 제공해주었는데, 이는 자연과 함께 고요한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만족도가 높았고,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원이 영주에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주에서 하나의 장소를 추천하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 크게 부담되지 않은 체험 비용이 좋았습니다. 자연에서 심신을 정화하고 올 수 있는 이곳은 정말로 삶의 품질을 높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의 모토처럼 ‘숲을 통해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 영주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하는 산림치유의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